

해외사업

# 2023년 상반기 지원결과 보고



Save the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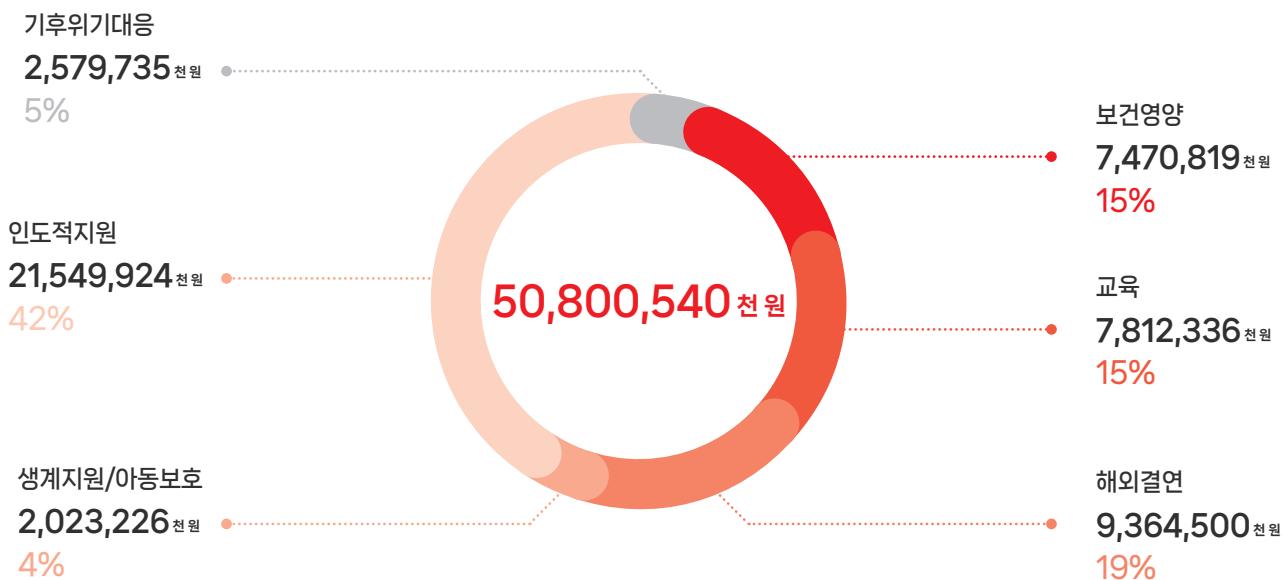
# CONTENTS

2023년 상반기 사업 소개	03
마이 포레스트 차일드(My Forest Child) / 베트남	05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 / 우간다	07
단기 집중 보충 수업(Catch-up Club) / 필리핀	11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속	14

# 2023년 상반기 사업 소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고자,  
 총 13개 국가에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건영양사업, 교육사업, 해외결연사업\*, 생계지원사업, 아동보호사업,  
 인도적지원사업\*\*, 기후위기대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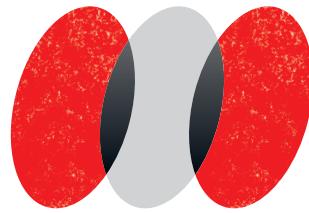
## 2023년 전체 해외사업 영역별 예산 계획



구분	세부내용	대상 국가
보건사업	의료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지원, 의약품 보급, 예방접종 권장 홍보, 보건인력 교육 등	বাংলাদেশ, 베트남, 우간다, 에티오피아
영양 및 생계지원사업	영소 배분 및 사육 교육, 농업·영양 교육, 텃밭 운영 등	우간다
교육사업	교육시설 개보수, 교사 교육, 지역사회 인식 개선, 교육 기자재 지원, 아동권리교육, 청소년 직업 훈련 등	네팔, 베트남, 에티오피아, 우간다,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필리핀
아동보호사업	아동의 자립 지원, 인식개선 활동 지원, 도로안전 인식개선 활동, 홍등가 지역 내 아동 보호 및 방과 후 교육 등	বাংলাদেশ, 인도네시아
인도적지원사업	자연재해, 무력분쟁, 질병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보호, 구호물자 전달 및 교육과 심리 정서적 치료, 재난예방 및 회복력 강화 지원 등	우간다, 소말리아,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튜르키예, 미얀마, বাংলাদেশ
기후위기대응사업	청정개발체계, 그린스쿨,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식수 개선 등	বাংলাদেশ, 인도네시아

\* 해외결연 사업보고서 발행 예정 (2023년 11월)

\*\* 인도적지원 사업보고서 발행 예정 (2023년 11월)



이번 보고서에는 상반기에 진행된 해외사업 중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이후에도 아동이 자립적으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들입니다.

## 2023년 사업 현황

시작사업

마이 포레스트 차일드  
(My Forest Child)

진행사업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 보내기)

종결사업

단기 집중 보충 수업  
(CuC, Catch-up Club)

각 사업 담당자들이 후원자님을 위해서 준비한 사업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뤄 낸 성과를 확인해 보세요!

숲을 지켜서 아동을 구하는

## 마이 포레스트 차일드 (My Forest Child)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마이 포레스트 차일드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사업부문의 채지원 매니저입니다.

국내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베트남의 탐장 코뮨(Tam Giang Commune)에서  
기후위기대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최남단 까마우성(Cà Mau Province) 남칸지구(Nam Can District)에 위치한

탐장 코뮨은 지속적인 토양 침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 변화 취약 지역입니다.



베트남



탐장 코뮨의 해안가에서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고 있고,

2015년부터는 120여 곳에서 토양 침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양 침식으로 집이나 다리가 잠기는 등 인프라가 붕괴되고, 생계수단인 새우 양식이 어려워졌습니다.

지역 내 아동과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 맹그로브: 열대·아열대 지역의 갯벌이나 해안에서 자라는 나무로, 수많은 해양생물의 보금자리입니다.

맹그로브 나무의 뿌리와 가지는 해안가의 흙을 가두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 토양 침식의 원인: 지속적인 폭우나 강한 바람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높고 거센 파도가 토양을 지속적으로 침식시키고 있으며 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세 가지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1 — 더 많은 맹그로브 나무를 심어 토양 침식 피해를 줄입니다.

- 지역주민이 직접 맹그로브 나무를 심어 재배하고, 나무가 죽거나 상한 자리에 보충하여 심는 활동도 함께 합니다.
- 맹그로브 숲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세션을 진행하고,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나무 성장을 관리하고 점검합니다.

## 2 — 새우 양식 기술 강화와 시장 확대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킵니다.

- 현재 지역주민의 새우 양식 기술이 급변하는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평가하고, 대상 지역에 맞는 새우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 지역주민이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며 지속할 수 있는 양식업 개발과 새로운 시장 접근법을 통해 새우 생산과 거래를 확대합니다.

## 3 — 아동 · 청소년 대상의 기후위기 교육을 실시하여 대응 능력을 길러냅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이 개발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임,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월간 기후 교육을 실시합니다.
- 아동과 청소년 주도의 기후 행동 그룹을 형성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탐장 코뮨 이외의 지역에서도 기후위기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베트남에서 시작하여 네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로 후원자님께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될 사업을 미리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숲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지키는 일은

결국 아동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간다에 염소를 보내는

##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사업부문의 박유나 매니저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 고티를 아시나요?

고티가 탄생한 곳이 바로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입니다.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은 우간다의 카라모자(Karamoja) 지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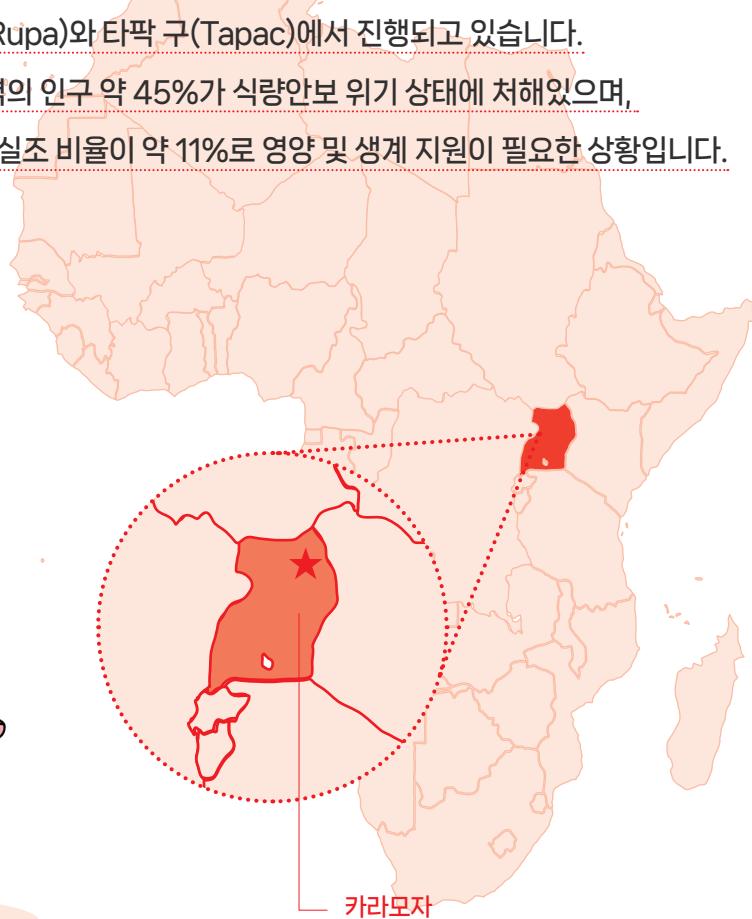
루파 구(Rupa)와 타팍 구(Tapac)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라모자 지역의 인구 약 45%가 식량안보 위기 상태에 처해있으며,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이 약 11%로 영양 및 생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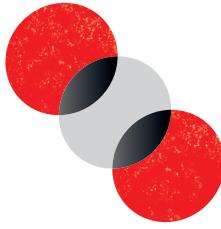
아마 후원자님께서는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염소를 가정에 직접 지원할 뿐 아니라, 영양가 있고 안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 텃밭에 씨앗을 배분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농업 및 영양 교육을 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힘을 길러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2022년 9월~2023년 2월)간 실시한 대표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1 — 식량 안보를 위해 생산적인 가축인 염소를 관리합니다.

- 총 976명의 지역주민 대상으로 염소 품종 선별, 발열 감지, 구충 관리와 같은 기초 사육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염소 배분을 통해서 총 187마리의 새끼 염소가 태어났으며, 새끼 염소는 암컷 염소를 받지 않은 가정에 다시 배분됩니다.
- 

### 2 — 염소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양상태 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 지역주민 대상으로 우수 농업 사례, 해충 관리법, 스마트 농법 교육을 진행한 결과, 총 1,240개 가정에 텃밭이 형성됐습니다.
  - 지역주민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생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돋습니다.
- 

### 3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전체의 인식 및 행동변화를 이끌어냅니다.

- 총 385 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각 가정 내 개인 위생 행동 변화, 다양한 음식 섭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총 51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회의를 4회 실시하여, 산모 건강, 모유수유, 아동 식습관, 영양실조, 염소질병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 후원자님께 사업 현장을 생생하게 들려 드리기 위해 현지에서 도착한

### 레지나와 로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저는 우간다에 사는 레지나(Regina)이고,

6명의 아이를 둔 엄마예요.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 마을에서

영양 및 산-비자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자주 맞닥뜨리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지, 양파와 같은 씨앗을 제공받은 덕분에,

우리 집 텃밭을 알차게 꾸리게 되었는데요.

가족을 위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야채는 팔아서 수입도 창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염소 두 마리를 지원받았는데요.

매일 2L 정도의 염소 젖을 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정말 기쁘기도, 이 염소들은 새끼 염소를 출산했고,

조만간 새끼 염소는 이웃에게 나누줄 계획이에요.

제가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엄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엄마들에게도 꼭 알려줄 거예요!”



텃밭을 가꾸는 레지나



염소 우유를 마시는 레지나의 막내 아들



"저는 우간다에 사는 로렘(Lorem)이라고 해요.  
2021년에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다른 아빠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일은 아내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고  
나무 아래에서 낮잠 자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관리해요.  
이제는 다른 아빠들에게도

저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텃밭에서 키운 부추는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더 많은 씨앗을 구입하여 또 심을 수 있어요.  
우리 부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 마을에 알려줘서 시작된  
마을 저축 및 대출 모임\*에 저축하며 우기를 대비하고 있어요.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아이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어요!"

\* 마을 저축 및 대출 모임(VSLAs, VILLAGE SAVINGS AND LOANS ASSOCIATIONS): 지역주민들이 함께 저축하고 공용으로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주민에게는 소액 대출해주는 일종의 마을 계모임. 관리위원회를 선출하여 대표, 총무 등이 각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



염소를 돌보는 로렘

레지나와 로렘의 이야기처럼,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으로 아동의 영양실조 상태를 개선하고

아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염소는 갈라 고트(gala goat)라는 품종으로 '우유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유를 많이 생산하여 단백질 제공에 큰 보탬이 되는데요!

생존력이 강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생존하는 이 염소는 우간다의 카라모자 가정 내 든든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부터 이 사업은 탄자니아에서도 확대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한 학교 생활을 위한

## 단기 집중 보충 수업(CuC, Catch-up Club)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세이프백투스쿨(Safe Back to School)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사업부문의 서성희 매니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세이프백투스쿨 사업 중에서도 얼마 전까지 필리핀에서 진행되었던 단기 집중 보충 수업(CuC, Catch-up Club)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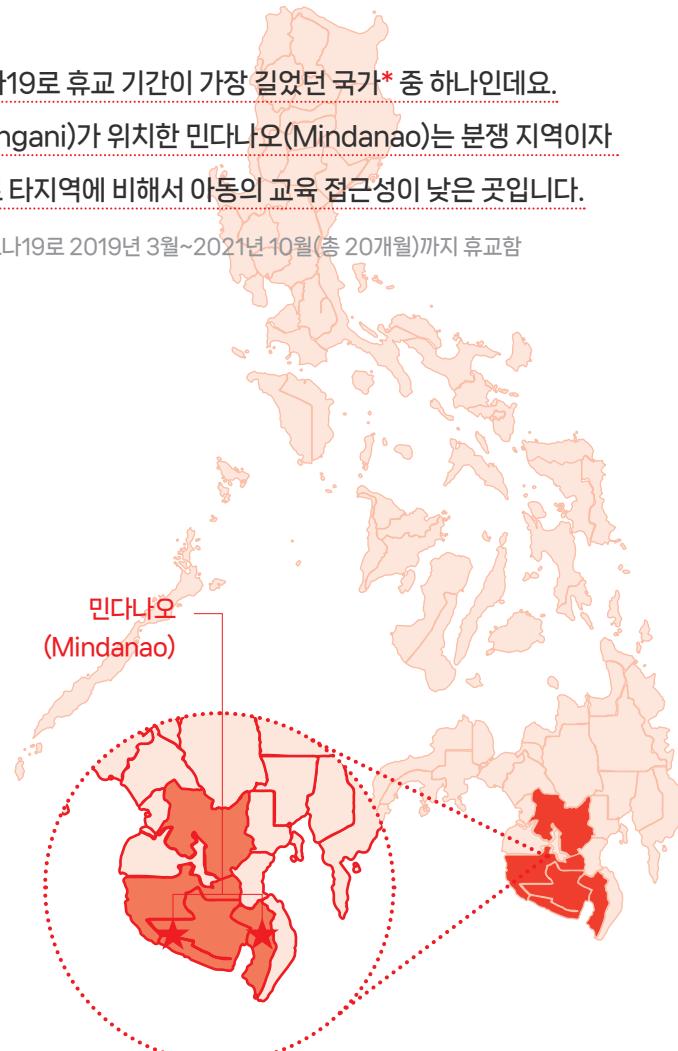
필리핀은 코로나19로 휴교 기간이 가장 길었던 국가\* 중 하나인데요.

특히 사랑가니(Sarangani)가 위치한 민다나오(Mindanao)는 분쟁 지역이자 소수민족 거주지로 타지역에 비해서 아동의 교육 접근성이 낮은 곳입니다.

\* 필리핀은 코로나19로 2019년 3월~2021년 10월(총 20개월)까지 휴교함



필리핀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은 사랑가니에 위치한 100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8~13세 아동 중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2,4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습니다.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은 한국의 방과 후 보충 수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의 문해력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향상시켜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총 3라운드로 구성된 이 수업은 매주 학교 수업 시작 전이나 방과 후에 1시간 반 ~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매 라운드가 끝나면 일주일간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단기 집중 보충 수업 진행 과정



세이브더칠드런의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은 아동의 읽기 수준을 총 6단계로 구분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동은 나이가 아닌 개별 문해 수준에 따라 그룹별 수업에 참여하며,  
아동은 놀이 기반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웁니다.

### 단기 집중 보충 수업 단계별 기준

단계	문해 수준
①단계 Beginner(입문)	글을 전혀 읽거나 쓸 줄 모름
②단계 Letters(글자)	알파벳을 대부분 모름
③단계 Words(단어)	알파벳은 대부분 알지만, 단어는 읽을 줄 모름
④단계 Sentences(문장)	단어는 읽지만, 문장은 읽을 줄 모름
⑤단계 Story(글)	문장은 읽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⑥단계 Story with comprehension(문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음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이 마무리 된 후, 그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두 그룹 모두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았으나

A 그룹만 단기 집중 보충 수업에 참여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A그룹에서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1단계 아동의 비율이 64.3%에서 16.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업 참여 이전에는 주로 1~3단계 수준이었으나, 수업 참여 이후에는

이야기를 읽거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5단계 이상의 성과를 보인 아동의 비율이 20.9%에 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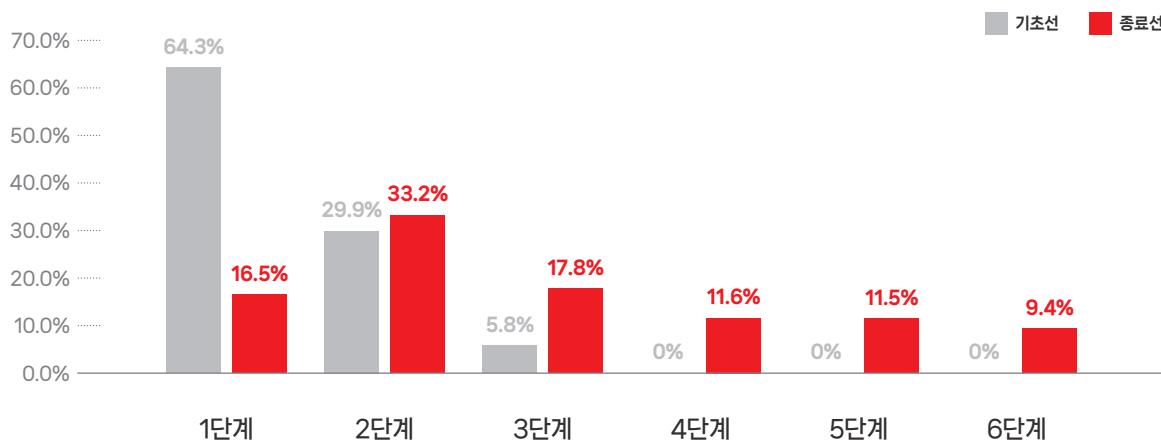
반면, B그룹은 1단계 아동의 비율이 55.3%로 A그룹의 64.3%에 비해 적었으나,

5단계 이상에 도달한 아동의 비율이 4.7%로 A그룹의 20.9%에 비해 문해력 향상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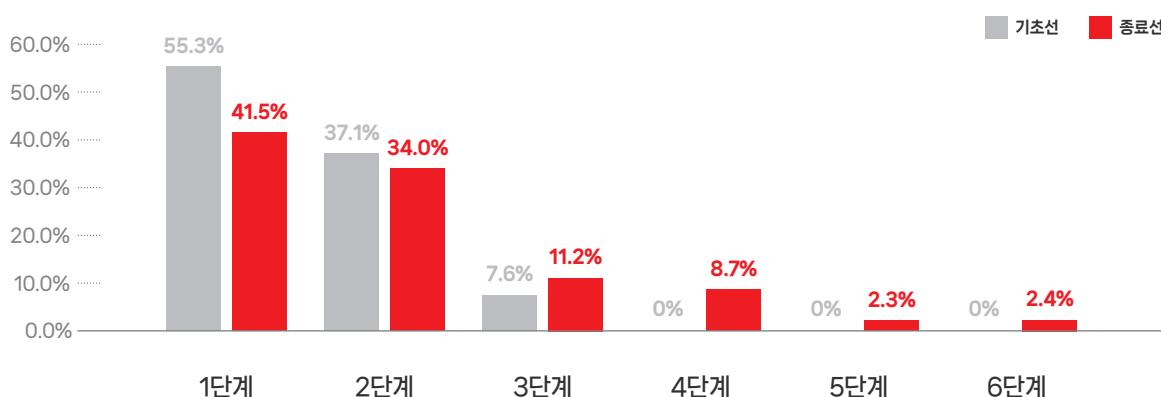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정규 수업만 받은 아동보다 단기 집중 보충 수업까지 받은 아동의 문해 수준이 더 빠르게 성장하며,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단기 집중 보충 수업 진행 여부에 따른 '아동의 문해 수준 변화(Literacy Level)' 그래프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을 받은 아동 - A그룹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을 받지 않은 아동 - B그룹



\* 기초선(Baseline), 종료선(Endline)

: A그룹의 단기 집중 보충 수업 시작 전후 측정값 (B그룹도 동일 기간 내 측정)

단기 집중 보충 수업에 참여한 아동 중 약 2,234명(93.1%)이 수업이 유익하다고 답변했으며,  
읽기 능력 향상(91.8%), 수업에 대한 이해도 증가(54.1%), 재미있는 수업 방식(22.4%)  
등과 같은 이유로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진행되었던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아동이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리핀 교육부와 함께  
사업 확장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기 집중 보충 수업이 학교 내 정규 수업으로 정착하여  
더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속

세이브더칠드런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후원금 관리가 후원자 여러분에 대한 존중이자 의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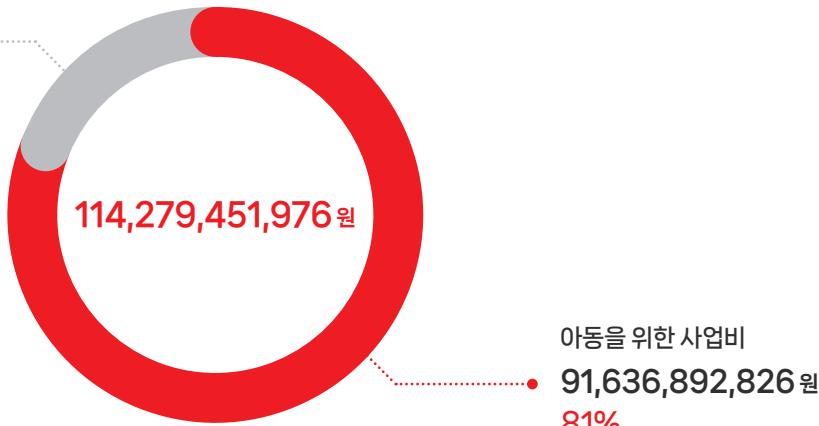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후원금의 81%를 아동을 구하는 사업비로 나머지 19%를 모금 및 일반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 2022년 총 후원금 지출

모금 및 일반관리비

22,642,559,150 원

19%



또한 후원금 사용에 관한 기부금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하며,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인 EY한영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이사회에서 연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후원금 사용 내용은 연차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사명을 잊지 않으며  
소중한 후원금이 도움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속을 믿고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께 기본 소식을 가득 담은 보고서, 사업보고회, 후원자 만남 등을 통해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